



WHO(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현재 담배규제협약에 이어 주류규제협약(가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총 8개의 음주피해 관련 결의안을 발표하여 해로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류규제협약을 추진해오고 있다.

참고1 WHO담배규제협약

지난 2003년 5월 WHO는 정기총회에서 ‘담배규제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의 판매와 흡연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금인상(담배가격인상), 광고전면금지, 판촉금지, 경고 문구 및 그림 삽입, 간접흡연노출규제, 미성년자 대상 판매금지 등의 규제사항들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2003년 7월 21일 서명을 했으며, 2005년 2월 27일 WHO회원국 40개국 이상이 비준함으로써 담배규제협약이 발효되었다.

한국에서는 담배규제협약발효 후 3개월후인 2005년 5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WHO회원국중 64번째로 비준을 하였다.

한국이 담배규제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에서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담배광고가 5년내에 전면금지될 예정이다.

WHO주류규제 진행상황

2005년 5월 제58회 WHO 정기총회에서 “해로운 음주로 인한 공공보건 문제(Public health problems caused by harmful use of alcohol)”라는 의제를 채택하며 본격적으로 주류규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6년 1월 집행이사회, 3월 WHO지역회의(필리핀), 5월 WHO지역회의(호주), 6월 지역회의(필리핀), 9월 WHO지역총회, 10월 주류규제 이해관계자 협의회(제네바) 등의 회의에서 주류규제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 되었다.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주로 인한 피해의 감소를 위한 규제사항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인상(가격인상), 광고 및 판촉 금지, 판매일수·시간 제한, 주류판매점 축소, 최소구입연령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등이 있다.

WHO는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규제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WHO는 주류규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건경제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의 입장에서 반영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세계 각국의 음주문화와 주류에 대한 인식이 다

르므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규제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WHO지역사무소별로 회의를 열어 규제안을 작성중이며, 지역 주류업계를 초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 협회에서도 지난 200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WHO지역회의에 참석하여 WHO의 주류규제에 대한 주류업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회의 이외에도 2006년 10월 9일 제네바에서는 세계주류업계와 농업, 무역업, 보건단체 등 주류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를 초대하여 주류규제에 대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주류업계의 대표로는 GAP-G(Global Alcohol Producers Group-국제주류업계연합), 유럽와인협회(Comite European des Vin), 남미주류협회(Latin American Brewers), 기린맥주(KIRIN Brewery-일본)이 참석했다.

그러나, 보건계의 대표들과 주류업계 대표들은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류규제 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주류업계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보건계의 의견마저 있어 앞으로 주류규제 전략수립에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WHO는 2007년 5월 정기회의에서 주류규제협약 채택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류규제 전략수립중이라 밝히고 있으나 이미 청사진을 완성한 것

참고2 WHO주류규제 이해관계자 협의회 참가단체 (2006. 10. 9 - 제네바 WHO본부)

구분	기관명칭
주류관련 단체	Global Alcohol Producers Group (국제 주류업계 연합)
	Latin American Brewers (남미 주류협회)
	Comite European des Vin (유럽 와인협회)
	KIRIN Brewery (기린 - 일본)
보건학계	International Council on Alcohol & Addictions (세계 알코올 중독 협의회)
	National Center for Epidemiology, Surveillance Health Promotion (세계 질병 & 건강증진 연구소)
	International Harm Reduction Association (세계 피해방지 협회)
	IGOT International (세계 금주협회)
	MADD National Office (음주운전 방지 협회)
	New Zealand Drug Foundation (뉴질랜드 약물재단)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 정신학 협회)
	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 (유럽 공공보건 연맹)
	World Medical Association (세계 의학협회)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세계 정신학 협회)
알코올 정책기관	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세계 알코올 정책 연구소)
	Global Alcohol Policy Alliance (국제 알코올 정책 연맹)
	Institute of Alcohol Studies (알코올 연구소)
	Alcohol & Drug Information Center (알코올 & 약물 연구소)
	Research Society on Alcoholism (알코올 사회연구단체)
Associaçao Brasileira de Estudos Alcoole Outras Drogas (브라질 알코올 & 약물 연구소)	
기타	Forut, Campaign for Development & Solidarity (세계 캠페인 연맹)
	HOTREC (유럽 호텔 & 레스토랑 연합)
	COPA-COGEA (유럽 농업협회)
	Pacific Institute Research & Evaluation (태평양 기획개발 연구소)

으로 보인다. 주류규제협약은 2007년 1월 상임이사회를 거쳐 5월 정기총회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9월1 일 국가 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플랜2010’ 을 발표하며 대대적인 절주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WHO의 주류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WHO주류규제에 대한 국내 보건계의 지지를 예상케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5일에서 7 일까지 3일간 ‘국제알코올컨퍼런스(International Alcohol Conference)’ 를 개최했다.

본 컨퍼런스는 “법사회적인 알코올 문제 이슈화 및 국내절주사업과 알코올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선진국의 알코올 정책사례분석과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세계 주류업계의 대응

WHO는 2003년 2월, 메이저급 다국적 주류회사인 디아지오(Diageo), 얼라이드 도메크(Allied Domecq), 페르노리카(Pernod Ricard), 브라운포먼(Brown-forman)과 같은 증류주 회사와 안호이저 부시(Anheuser Busch), 인베브(Inbev), SAB밀러(SABMiller), 쿼스(Coors), 하이네켄(Heineken)같은 맥주 회사들을 초대하여 주류 마케팅 규제와 관련하여 협의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WHO의 주류규제외지에 대해 실감한 메이저 주류업계의 대표들은 2004년 9월, 런던에서 전

세계 각지의 주류 회사들과 반주류 NGO 지지자들, 광고계 회사와 WHO 관계자들을 초대하여 “마케팅 및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WHO의 주류규제협약채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이저 주류회사를 중심으로 국제주류업계연합(GAP-G, Global Alcohol Producers' Group)을 구성하였다.

참고3 GAP-G(국제주류업계연합) 회원사

Diageo (디아지오)	Brown Forman (브라운 포먼)
Heineken (하이네켄)	Anheuser Busch (안호이저 부시)
Inbev (인베브)	Poster (포스터)
Pernod Ricard (페르노리카)	San Miguel (산 미구엘)
SABMiller (SAB밀러)	NZ Winegrowers' Group 뉴질랜드 와인협회
Coors (쿼스)	BAJ (Brewers Association of Japan)
Bacardi (바카디)	(아사히, 기린, 삿포로, 산토리, 오리온)
Jim Beam (짐 빔)	

GAP-G(국제주류업계연합)는 현재 WHO주류규제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류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GAP-G는 2006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WHO서태평양 지역회의에 서태평양 지역 주류업계 대표로 참가하여 지나친 주류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WHO측에 피력했다. 또한 주류업계는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음주피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으며, 향후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WHO가 우려하고 있는 음주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GAP-G는 주류업계의 자율규제가 음주피해문제를 줄일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첫째 WHO에서 추진하는 규제는 지역의 문화를 고려한다고 되어있기는 하나 획일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 반면 자율규제

는 지역주류업자들에게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속성이다. 주류업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규제이므로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소비자들이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판매자외의 제3자가 시행하는 캠페인은 단순히 계몽운동으로 끝날수 있는 반면 판매자가 직접 실시하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은 소비자들의 빠른 음주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GAP-G는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주류업계 자율규제 워크숍에 이어 2006년 6월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율규제 워크숍을 ICAP(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세계알코올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하여 주류업계의 자율규제 의지를 WHO 및 세계에 개진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류업계의 자율적인 광고금지(2) 발표 및 NGO, 광고업계, 보건계의 주류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음주피해감소 및 음주문화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본 협회에서도 워크숍에 참가하여 국내주류업계의 음주피해감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그 예로 주류업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알코올의존 재활·치료 병원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소개하였다.

GAP-G는 2006년 10월 9일 제네바에서 열린 WHO 주류규제 이해관계자 협의회에도 참가하여 자율규제 의지를 개진하였으며, 2006년 12월 11일에서 12일 이틀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Trade Association

Meeting(주류업계회의)을 미국의 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음주피해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대책과 WHO주류규제에 대한 진행사항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본 협회에서도 회의에 참가하여 국내주류업계의 향후 대응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추진사항

WHO주류규제는 2007년 1월 집행이사회를 거쳐 5월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비록 한국은 WHO 집행이사국가는 아니지만 전 WHO사무총장인 고 이중욱 사무총장의 모국이며, 차기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의 모국인 만큼 WHO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WHO정기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는 주류업계와 보건계의 상호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계는 주류산업의 산업적 측면, 즉 국가경제기여도와 주요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주류업계는 보건계의 보건적 측면에서의 음주문제를 이해해줄수야 할 것이다.

참고4 WHO집행이사국

지역	집행이사국
아프리카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르완다, 미디카스카르, 말리, 나미비아
아메리카	볼리비아, 브라질,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미국
동지중해	바레인, 지부티,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유럽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터키
동남아	부탄, 스리랑카, 태국
서태평양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통고